

# KTX 해고 여성무원들 끝나지 않은 투쟁

✎ 변백선 기자 | Ⓜ 승인 2015.10.21 22:55

대법판결 규탄! 직접고용 촉구! KTX 승무원 촛불문화제



▲ © 변백선 기자

철도노조 KTX승무지부 조합원들과 철도노조 김영훈 위원장이 금속노조 쌍용차지부 등 연대단체들이 21일 오후 서울역광장 계단에서 '대법판결 규탄! 직접고용 촉구! KTX 승무원 촛불문화제'를 열고 '함께가자 우리 이 길을'을 합창하고 있다. © 변백선 기자



▲ ◎ 변백선 기자

KTX승무지부 조합원들은 대법원의 파기환송 이후 지난 3월부터 서울역과 부산역에서 1인시위를 하고 있다. ◎ 변백선 기자



▲ ◎ 변백선 기자

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 조합원들이 KTX승무지부 조합원들을 응원하며 음악 공연을 선보였다. ◎ 변백선 기자



▲ © 변백선 기자

KTX 승무원 직접고용 관련 파기환송심이 지난 7월 24일부터 진행되고 있으며, 오는 23일 3차 심리가 열린다. © 변백선 기자



▲ © 변백선 기자

철도노조 KTX승무지부 김승하 지부장은 촛불문화제 마지막 발언을 통해 "힘들고 속상한 일들이 많지만 많은 사람들이 응원해주는 걸 생각하면 다시 기운이 난다"고 연대한 노동자들에게 고마움을 전하고 "금요일 3차 심리가 있고, 저희가 소송으로 간 것은 이 나라 사법부가 우리 마지막 믿음이었기 때문이었는데, 그 사법부마저 우리 손을 들어주지 않아 지금 8개월째 투쟁 중"이라며 "오늘 받은 힘으로 내일 또다시 힘차게 싸우겠다"고 다짐했다. © 변백선 기자



▲ © 변백선 기자



▲ © 변백선 기자

촛불을 밝히며 KTX 여승무원들을 응원하고 있는 촛불문화제 참가자들. © 변백선 기자



**변백선 기자** n7349794@naver.com

저작권자 © 노동과세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